


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|
| <br>금융위원회 | 보도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<br>대한민국 대정환<br>한국판뉴딜                 |
|  |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포 시 | 배포    | 2022.2.28.(월)<br><br>내 삶을 바꾸는<br>규제혁신 |
| 책 임 자  | 금융위원회 은행과장<br>김 연 준(02-2100-2951)   |      | 담 당 자 | 송용민 사무관(02-2100-2953)  |
|  | 은행연합회 은행전략부장<br>박 진 우(02-3705-5247) |      |       | 박준범 팀장(02-3705-5287)   |

##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 개최

◆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레 더 연장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, 세부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
## 1

## 회의 개요

- 은행연합회(회장 김광수)는 금융위원회(위원장 고승범)와 은행권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.28.(월)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
### 【 간담회 개요 】

- 일시 및 장소 : 2022. 2. 28.(월) 15:45, 은행회관
- 참석자 : 금융위원장, 은행연합회장, 10개 사원은행장 등

## 2

## 만기연장.상환유예 연장 협력

- 이 자리를 통해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하였고, 은행권도 조치 연장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.
- 대출 만기연장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유예까지 기존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으며,
  - 세부방안은 주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또한,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,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- 현재 금융당국이 실시중인 자영업자 경영·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,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은행권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
### 3

#### 글로벌 변동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

- 고승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,
  - 위기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화유동성 관리 등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,
  - 특히,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은행권에 당부하였습니다.
  - 또한,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음을 설명하고 금융제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.
- 은행권은 최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### 4

#### 은행의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

- 고 위원장은 은행권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,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- 정부는 ‘디지털 유니버설 뱅크’ 구축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, 업무범위,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며,
- 부분적 규제 정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업법(은행법, 보험업법, 여전법)을 Digital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\*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\* 금융위, 법률·금융전문가, 업계가 함께 「금융업법 개정 TF」 운영 중('22.2~)

-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이 ‘디지털 유니버설 뱅크’로 전환하여 국민에게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·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,
- 금융계열사간 정보 공유 완화와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범위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- 김 회장은 은행들이 자산관리 부문에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,
- 특히, 신탁가능 재산 범위 확대,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, 김 회장은 은행권이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1조원, 총 3조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해 왔으며, 서민금융지원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